디지털 보안 잰걸음

삼성SDS, 伊 국방 접수 모바일 보안사업 가속화

모바일 보안 솔루션 'EMM' 사업 수주
2월엔 美 안보국서 세계 최초 CC 인증
英 국방·싱가포르 이어 글로벌서 인정

삼성SDS 전경. /뉴시스

삼성SDS가 최근 이탈리아 국방 모바일 보안 사업을 수주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삼성SDS는 2015년부터 미국 국방부와 육·해·공군·해병대, 영국 국방 기관, 싱가포르 공공 기관을 대상으로 모바일 보안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 경험과 역량을 인정받은 삼성SDS는 자사 모바일 통합보안 솔루션 EMM의 다양한 보안 기능으로 이탈리아 정부 기관에 안전한 모바일 업무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이 솔루션은 ▲사용자 등급별 보안 정책에 따른 단말기 관리 및 원격 제어 ▲안전하지 않은 네트워크 접속 차단 ▲비업무용 애플리케이션 설치 방지 등 국방 및 공공 기관에서 필요한 모바일 보안 기능을 제공한다.

특히 삼성SDS의 EMM 솔루션은 지난 2월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국가정보보증협회(NIAP)로부터 안드로이드 및 iOS 운영체제에 대한 최신 정보보안 평가(CC) 인증을 세계 최초로 획득했다.

CC 인증은 공공 기관의 정보보안 제품 도입을 위한 필수 인증제도다. 삼성SDS는 서버 간 암호화 통신 구간 확대, 보안 알고리즘 고도화 등 보안 수준을 더욱 강화해 새롭게 제정된 CC 인증 기준을 충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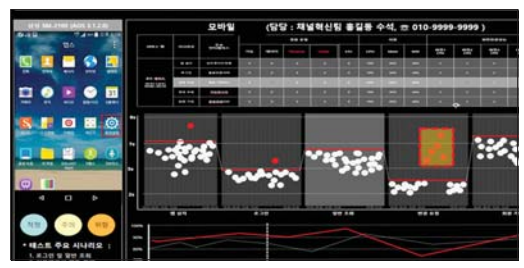
한편, 삼성SDS는 이 외에도 보안성이 뛰어난 자사의 브라이틱스 IoT 플랫폼에 AI·블록체인 등 최신 기술을 융합해 싱가포르 공공 기관의 실내 위치 추적 솔루션 사업을 최근 추가 수주했다.

실내 위치 추적 솔루션은 삼성SDS의 최신 IoT 기술을 적용해 방문객의 건물 내 실시간 위치를 파악하고 보안구역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보안에 안정성까지 검증 디지털금융 특화 서비스

SK㈜ C&C '엠티웍스'
클라우드 기반 모바일 웹·앱 솔루션
자동 테스트로 시간 줄고 안정성 높여


모바일 관제 서비스. /SK㈜ C&C

SK㈜ C&C는 클라우드 기반의 모바일 웹·앱 테스트 솔루션 '엠티웍스'를 통해 '디지털 금융 특화 웹·앱 모바일 테스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엠티웍스는 간단한 인터넷 접속만으로 원격의 단말기 제어는 물론 모바일 테스트 자동화를 지원한다. SK㈜ C&C 모바일 센터 내 140여 종의 모바일 기기(실물 스마트폰·태블릿 PC)를 활용해 각종 모바일 웹·앱 테스트를 진행하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방식의 퍼블릭 서비스와 고객사 내부망에 전용 센터를 구축해 주는 온프레미스 방식의 프라이빗 서비스가 있다.

동일한 테스트 시나리오 기반의 주기적 자동 테스트·점검은 물론 오류 리포팅을 통해 테스트에 소요되는 시간은 크게 줄이고 서비스 안정성은 획기적으로 높여준다.

디지털 금융 특화 엠티웍스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프라이빗 서비스 외에도 '이동형 테스트 서비스'를 추가했다는 점이다. 이동형 모바일 테스트 장비 세트를 가져와 설치하면 된다. 간단한 설치와 저렴한 가격에 이동 편의성이 더해지면서 소규모 프로젝트 조직에서도 언제든 기존 프라이빗 서비스와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고객 업무 특성에 따라 프라이빗과 퍼블릭, 이동형 모바일 테스트 서비스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엠티웍스가 유일하다.

금융 보안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실제 소비자 사용 웹·앱을 그대로 테스트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자체 보안 기술과 금융 시스템 구축·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안 키패드를 비롯한 보안 화면 미러링을 지원한 덕분이다.

매번 쏟아지는 금융사의 다양한 웹·앱 이벤트 페이지 이미지 인식 및 테스트도 별도 제공한다. 수치 연산자를 통한 계좌이체·보험료 산정과 같은 편의 기능도 마련했다.

웹·앱 품질이 곧 수익인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위한 '금융 특화 모바일 관제 서비스'도 상반기내 제공 예정이다. 실시간 디지털 금융 서비스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징후 사전 파악은 물론 장애 발생시 관련 증적 자료 제공을 통해 신속한 장애 조치를 뒷받침한다. 앱 배포 전 보안 취약점 점검 및 리포트 제공 기능도 마련한다

/구서윤 기자

아시아나, 4월에 절반만 근무… 자구책 강화

모든 직원 15일 이상 무급휴직
임원 급여 반납 10% 늘려 60%

아시아나항공이 3월에 이어 4월에도 생존을 위한 특단의 자구책을 실시한다.

아시아나항공은 24일 모든 직원들이 4월에 최소 15일 이상의 무급휴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모든 직원이 최소 1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했던 지난달보다 더욱 강화된 조치로 휴직 대상도 조직장까지 확대된다. 아시아나항공의 임원들은 급여 10%를 추가 반납해 총 60%를 반납한다. 또한 지난 16일부터 운항이 중단된 A380(6대 보유) 운항승무원들은 고용유지 조치의 일환으로 유급휴직에 들어갔다.

아시아나항공은 "코로나19로 인해 국제 여객 노선이 약 85% 축소(공급좌석 기준)되고 4월 예약률도 전년대비 -90% 수준이다. 최소 70% 이상 수준의 유휴인력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전 직원 무급 휴직 확대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현재로서는 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경영 체제가 향후 언제까지 지속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월말부터 '코로나 19 대책본부'를 가동해 일원화된 의사결정 체제를 구축하고 직원과 고객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또한 2월에는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모든 임원 일괄사표 제출 및 임원·조직장 급여 반납(사장 40%, 임원 30%, 조직장 20%)의 조치를 했으며, 3월에는 이를 더욱 확대해 임원·조직장 급여 반납률을 확대(사장 100%, 임원 50%, 조직장 30%)했다.

아울러 아시아나항공은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급격한 경영 여건의 변화를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기 위해 전사적인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여객기 공급 감소로 인해 늘어난 국제 화물 수요 공략이 대표적이다. 현재 화물기 14대(자사기 12대, 외부 임차 화물기 2대)를 철저한 수요 분석을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외식 자제에 식자재 유통기업 실적 '악화'

업계 1위 1분기 영업익 반토막 전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외식시장이 위축되고 단체급식 일부 사업장에서도 영업활동이 정지되면서 식자재 유통 기업들이 비상에 걸렸다.

24일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진행한 외식업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월 25일부터 28일까지 국내 외식업체의 일평균 고객 수는 평균 59%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식뿐만 아니라 배달 수요도 주춤하면서 코로나19 사태 회복은 더뎌질 전망이다.

식자재 유통 기업의 실적에도 먹구름이 꼈다. 시장에서는 업계 1위인 CJ프레시웨이의 1분기 영업이익은 3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적자 전환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는 지난해 매출 3조551억 원으로 업계 첫 3조 원을 돌파하고 영업이익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나 증가한 것과 대조적인 전망이다. 남성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CJ프레시웨이의 1분기 매출은 7052억 원, 영업손실 108억 원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감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1분기 적자 전환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심지현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CJ프레시웨이 단체급식 부문은 재택근무로 인한 사업체 쪽의 감소와 방문객이 줄어든 대학병원 쪽의 감소가 두드러진다"며 "외식경로 거래처 수 역시 2월 전년 동기 대비 기준 상당 폭 줄었다"고 분석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현대그린푸드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 192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28.6% 감소할 전망이다. 신세계푸드의 1분기 영업이익은 33.3% 줄어든 20억 원으로 추정했다.

현대그린푸드는 B2C 사업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케어푸드'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정해 브랜드 '그리팅' 론칭하고, 향후 5년 이내에 매출 규모를 1000억 원대로 키운다는 목표다.

신세계푸드는 '노브랜드 버거'를 앞세워 프랜차이즈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되지 않는다면 상반기 의미 있는 매출 증가는 어려울 전망이다.

심은주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신세계푸드는 급식 부문은 고객사 이탈 및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으로 마진 압박이 지속하고 있고 대내외 환경 악화로 외식 매출은 역성장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전사 수익성 개선은 급식 및 매입유통 부문의 정상화가 키포인트"라고 했다.

시장에서는 공통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식자재·외식 업체들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소비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수요 회복은 더딜 전망이다. /김민지 기자 kmj@

현대글로비스, 중고차 비대면 경매 시스템

국내 최초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현대글로비스 직원들이 24일 분당 자동차 경매장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클라우드 경매 시스템 '오토벨 스마트옥션'을 시현하고 있다.

현대글로비스가 국내 최초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 중고차 비대면 디지털 경매 시스템을 구축했다. 분당·시화·양산 등 전국 3곳의 자동차 경매장에서 각기 진행되는 경매 정보를 하나의 서버에서 실시간으로 통합·공유해 경매 사용자인 중고차 매매업체의 편의성을 높이고 3배 많은 매물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주 1회 진행된 중고차 경매가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주 3회 실시된다.

현대글로비스는 24일 중고차 매매업체 전용 신규 디지털 경매 시스템 '오토벨 스마트옥션'을 론칭했다고 밝혔다. 이는 글로비스가 매주 경기 분당(화요일)과 시화(금요일), 경남 양산(목요일) 경매장에서 독자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오프라인 중고차 경매를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해 하나로 통합한 디지털 경매 시스템이다. /양성운 기자 ysw@